

“고단한 문학의 길도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쌍둥이 자매 소설가 김희진(왼쪽)·은진씨가 지난 16일 광주 송정리역 앞 광장에서 나란히 앉아 포즈를 취했다.

쌍둥이 자매 소설가 김은진·희진씨

최근 광주에서 일란성 쌍둥이 자매 소설가가 탄생해 화제다. 종종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 부자(父子) 소설가나 누나 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있지만 쌍둥이 문인은 그리 흔치 않다.

주인공은 올해 세계일보 신춘문예에서 단편소설 ‘희’로 등단한 김희진(31·광주서 광산구 도산동)씨와 2004년 중앙일보로 등단한 언니 은진(31)씨.

지난 16일 송정리역 인근 카페에서 이들을 만났다. 한참 결혼을 꿈꾸던 나이지만 이 둘 자매에게 결혼이나 남자는 관심 밖이다.

나란히 ‘등단’...소설 쓰기 한길

문단 선배는 동생 희진씨였다. 목포대 국문학과에 재학중이던 희진씨는 전남대 지리학과에 다녔던 은진씨에게 “언니도 소설을 한 번 써보라”고 권유했다. 은진씨는 첫 소설을 써서 희진씨에게 보여줬고, 희진씨는 이 소설을 학과 교수에게 건넸다. 은진씨는 ‘가능성이 보인다’는 교수의 격려를 얻었다.

“교수님의 코멘트는 제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신 말씀 아닐 거예요. 중독과 같은 ‘소설 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치고는 좀 허무하죠.(웃음)”(은진)

이후 이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등단’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은진씨는 지난 2004년 중앙신인문학상 단편소설 부문에 ‘기쁜 실현실’로 당선됐다. 이후 각종 계간지 등에 기고한 작품이 9편 가량. 조만간 소설집이 묶여 나올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2년 전남일보 신

춘문예에 등단한 적이 있지만 지방지 등단의 한계를 체험해야 했다.

희진씨 역시 지난 2001년 ‘월간 문학’ 신인상 소설 부문에 당선되면서 문인의 이름을 얻긴 했다. 하지만 중앙이나 유명 문예지 출신들을 우대하는 문단의 현실에 부딪혔다. 그래서 희진씨는 “가능하면 서울로 가서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인들이나 평론가들과 만나는 일 등 여러 가지로 유리할 거란 생각에서다.

이들과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착각이 들었다. 얼굴은 물론이고, 특별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없어서다. 책이나 TV를 보면서 느끼는 생각들도 거의 비슷하다.

장르도 같다. 앞으로 어떤 작품을 쓰고 싶냐는 물음에 두 사람 모두 “한 번 뺏은 말은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쉽게 미려의 일을 예상하거나 발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둘 자매는 책임감과 글 쓰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하루에 한시간은 꼭 운동에 투자한다.

얼굴 같아도 ‘작품세계’는 달라

이들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작품세계다. 이는 어찌보면 개성을 드러내야 하는 문인으로서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희진씨는 “언니가 너무 가치있어 내 작품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할 때는 신경이 쓰이기도 하지만 그런 게 오히려 힘이 될 때가 많다”며 “무엇보다 힘든 문학의 길에 동반자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스트라빈스키 발레 모음곡 ‘불새’

광주시향 신년음악회 25일 광주문예회관



클라리넷 전태성 소프라노 김선희

광주시향교향악단(지휘 김노상) 신년음악회가 25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주제의 ‘경기병 서곡’으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에서는 클라리넷 연주자 전태성(추계예술대) 교수가 소우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협연하며 이탈리아 베르디 국립음악원에서 수학한 소프라노 김선희씨가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아, 그이던가’를 들려준다.

또 광주시향합창단이 ‘경복궁타령’ 등 민요 모음곡을 선사한다. 이번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 모음곡 ‘불새’, ‘서곡’, ‘불새의 춤’, ‘공주의 원무’, ‘자장가’ 등으로 구성된 ‘불새’는 러시아적 색채가 강한 작품으로 ‘봄의 제전’ 등과 함께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적인 곡으로 꼽히고 있다. 문의 062-524-50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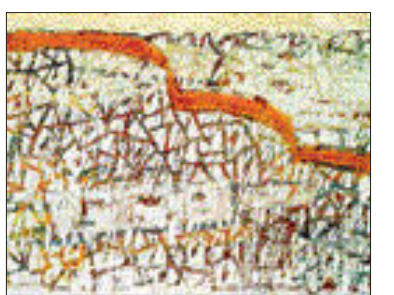
‘그리움의 공간’ 정겨운 마을

서양화가 하영술展 28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서양화가 하영술씨가 28일까지 광주 신세계갤러리에서 마을을 주제로 개인전을 갖는다.

하씨는 이번 전시에서 오랜저택 갈색과 밝은 노란색으로 빛나는 동·서양 마을의 정경을 선보인다.

화폭에 담긴 마을은 자신이 프랑스 유학시절 머물렀던 폐교이라는 작은 샬터와 광주의 모습으로, 동·서양을 뛰어넘어 고향 마을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다. ‘원효사 가는 길’, ‘VILLAGE’ 등의 작품은 단순화한 선묘와 분할된 색면을 채택함으로써 고향을 ‘그리움의 공간’, ‘아늑한 샬터’로 묘사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원효사 가는 길’

중앙대 예술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대학에서 미술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새벽’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남진미술관장을 맡고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작가들 어깨 ‘으쓱’

김상연·마이클 주 등 세계 5대 아트페어 ‘아르코’ 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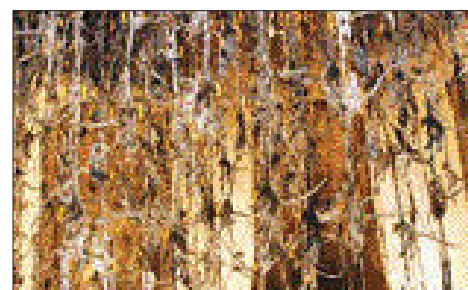
작품이 한국의 현대 문화예술과 정체성을 대표한다는 점 때문에 참가를 결정했다.

참여 작가는 김상연, 손봉태(이상 광주)씨를 비롯 최정화, 마이클 주, 박성경, 황인기, 이종상, 이우현, 최민화, 김중구, 이수경씨 등 12명이다. 이들은 ‘뿌리를 찾아서-한국이야기 펼쳐다’

를 주제로 열리는 아르코 아트페어 부대전시

에 비엔날레 참가작을 그대로 전시하거나, 설치작품의 경우 제작업을 거친 작품을 선보인다.

한편, 제1회 광주비엔날레에 출품돼 비엔날레관에 전시중인 백남준(1932~2006)씨의 비



김상연 작 ‘곰흔들’

디오 설치 작품 ‘고인물’도 최근 아르코 2007아트페어 기획전에 임대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에 참여한 작가들의 작품이 사상 처음으로 해외 유명 아트페어에 선보인다.

(재)광주비엔날레는 22일 “2006광주비엔날레 첫 장의 전시주제인 ‘뿌리를 찾아서-아시아 이야기 펼쳐다’의 한국 작가 12명이 작품 주제를 그대로 살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아르코(ARCO) 2007아트페어(2월14~19일)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아르코 아트페어는 스위스의 바젤, 미국의 사카고, 프랑스의 피아, 독일의 쾰른 아트페어와 함께 세계 5대 아트페어로 꼽히는 미술제다.

올해 아르코 아트페어 주빈국을 맡게된 한국 조직위는 제6회 광주비엔날레의 전시 주제와

Movie listings for 'm-o-v-i-e-s' including Happy Time, 영화안네, and other titles.

MEGABOX movie listings for titles like 마파도2, 허브, and others.

Movie listings for '엔터시네마' including 허브, 목공, and 마파도2.

Movie listings for '콜롬버스시네마' including 허브, 데지뷰, and others.

Real estate listings for '아파트' and '주택+대지' with various property details.

Real estate listings for '아파트' and '주택+대지' with various property details.

Real estate listings for '대인부동산컨설팅' including services like lease, sale, and management.

Real estate listings for '인애공인중개사' and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with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listings for '현대공인중개사' and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with various property offers.

Real estate listings for '현대공인중개사' with details on apartment and house sales.

Real estate listings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

Real estate listings for '법원경매' (court auction) with details on various properties.